

'정책 반올림' 발대식 개최

군산시, 시정혁신 위한 정책연구 모임

군산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책 연구모임 '제1기 정책 반올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 반올림이란 임용 5년차 이하인 신규 공무원들의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혁신을 올리고, 불필요한 관행은 내리는 정책연구모임을 뜻한다.

이번에 선발된 18명의 정책 반올림 참가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시는 정책 반올림을 통해 부서 간

컨택이를 없애고 수직적인 공식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 등을 공유해 시정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책반올림팀의 간담회를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MZ세대의 합리적이고 참신한 의견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가 이뤄졌다.

정책반올림은 매주 금요일 Free Idea Day(자유 생각의 날)를 운영하여 ▲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고 우수 방안을 시책으로 발전시키며 ▲ 정부

종합청사 및 국회의사당 등 선진지 견학 ▲ 세대공감토론 활동을 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MZ세대 공무원들이 정책반올림팀들의 참신한 상상력과 대담한 실행력을 통해 세대간 소통 확대와 적극행정의 분위기 확산을 기대하며, 선진지 견학을 견문을 넓혀 향후 국가예산 발굴 등 폭넓고 거시적인 행정 마인드를 갖는 정책반올림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 반올림은 형식적인 모임을 탈피하기 위해 모집 시 연령·부서 제한없이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받았으며, 자유주제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청년들의 꿈과 도전 응원

군산시, 제2회 청년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군산시 청년들 청년센터·창업센터는 오는 18일까지 '제2회 군산시 청년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함양 및 청년정책 제안을 위해 '역량강화특강 및 스타터'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는 '청년정책학교'가 같이 운영된다.

공모 분야는 ▲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 ▲ 청년 인재를 유입·확보·정착·정주 방안,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극복 정책, ▲기존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개선방안

공모 분야는 ▲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 ▲ 청년 인재를 유입·확보·정착·정주 방안,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극복 정책, ▲기존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개선방안



또한 5인승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수소 전기)의 경우에는 50만원 추가지원 된다. 그 외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조기 폐차 70%, 신차구매 3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의 차량은 조기 폐차 100%, 신차구매 200% 지원한다.

단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 차량, 지방세 체납(환경개선부담금 등)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효과가 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원사업 내용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 약 6,900명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익산=이특훈기자

미세먼지 줄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

익산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정상 가동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가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장치비의 90%를 지원해준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에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중 견설기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조기 폐차는 3,500대, 매연저감장치 392대를 선정할 예정으로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터넷, 문자, 현장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휴대폰 문자와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휴대폰 문자 접수는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 후 동 지역은 010-4825-4422로, 먼 지역은 010-4826-4422로 문자 전송하면 된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의 경우 보조금이 차량 기준가액의 70%에서 50%로 신차구매 보조금이 30%에서 50%로 변경됐다.

또한 5인승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수소 전기)의 경우에는 50만원 추가지원 된다. 그 외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조기 폐차 70%, 신차구매 3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의 차량은 조기 폐차 100%, 신차구매 200% 지원한다.

단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 차량, 지방세 체납(환경개선부담금 등)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효과가 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원사업 내용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 약 6,900명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익산=이특훈기자

익산역 공영주차장 172면 조성, 주차 수요 분산 기대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KTX익산역 철도이용객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송학동 85·5 일원에 공영주차장 172면을 조성했다.

시는 2020년 12월 송학동 역골자구 장기미집행사업인 원충농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 202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통한 잔여 부지매입을 통해 공사를 진행·완료했다.

주차장 진입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방지 및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무단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역골 주차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역골주차장은 준공 후 무료 개방 등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유료화 추진 등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대리주차 서비스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역골 주차장 본격 운영에 발맞추어 인근에 약 100면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동시 운영함으로써 주차 수요분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KTX익산역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역세권 주거 지역과 쇠퇴한 상권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며 "소규모 임대형 공영주차장



익산역 주차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차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국가유공자 유가족 자택 명패 부착 행사

군산시는 국가보훈처와 전상군경 유족 및 보국수훈 유족 자택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시장, 김영진 전북서부보훈지청장과 유족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명패를 부착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세밀하게 신경써주고 직접 방문해서 집에 찾아가 달아주시니 국가에 대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군산시 대상은 총 387명으로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에게 명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노후 상수관 교체 안정적 물 공급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 상반기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시행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오산면과 용안면 일부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총 2.9km에 대한 교체를 이달 착공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오산면과 용안면 일대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관로로, 잦은 누수 또는 적수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던 곳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산면 3개 마을(서오산 농흥, 관음), 용안면 1개 마을(송정)의 수용가에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유수를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이특훈기자

군산시, 영조물 배상보험 시민 안전복지 실현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배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 원까지이며 지난 해에는 99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접수방법은 해당시설물 담당 부서에 영조물 배상보험을 접수하면 되고 그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